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시작, 김영선 의원 수난으로 막내려

20세기 가장 획기적인 법이라고 할만한 남녀차별금지법이 전격 통과된 것과 함께 99년을 시작한 여성계는 수확도 많았고, 수난도 많았고 그리고 논쟁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들어와 올해 1월 전격 통과된 남녀차별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고용, 교육, 복지, 재화 시설 이용 등 각종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이전 성차별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법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에 따라 강력한 조사권과 시정권과 권한을 갖게 돼 단순히 정부 자문기구가 아니라 집행기구로 승격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차별을 직권조사해 남학생 쿼터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올해초 개정되면서 직장문화에도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 이 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화됐고, 이와함께 대기업 유통업체를 선두로 한 예방교육은 화제를 모았다. 경총과 정부기관에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여성단체 실무자들은 기업의 예방교육 간사로 맹활약 했다.

여성인권과 관련한 이슈도 계속 터져 나왔다. 올해초부터 시작해 99년 마지막까지 여성계를 달군 황혼이혼 논쟁. "내일 죽어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한 이시형 할머니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김창자 할머니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 패소해 여성계의 맹렬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여성계는 노인여성의 인권차원에서

할머니의 이혼요구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었다.

미혼모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되짚어본 한해였다. 자신의 아기가 친부에 의해 강제 입양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기 찾기에 나서 10개월 만에 아기를 되찾은 진현숙씨 사건. 진현숙씨 사연은 여성신문에 처음 소개돼 여성단체들과 여성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극적으로 아이를 되찾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에게 더 이상 비난이 아닌 인권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이시형할머니와 진현숙씨 돕기는 여성신문사가 올해 벌인 여성인권지원사업 1·2호이기도 했다.



IMF이후 관행화된 여성우선해고는 올해 더욱 절정에 달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5월 농협의 사내커플 우선해고 사건이다. 당시 구조조정과정에서 농협은 사내커플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비난을 받았는데, 구조조정 결과 762쌍에서 살아남은 커플이 10쌍에 불과했던 것. 또 명퇴한 커플 가운데 91.8%가 아내의 퇴직인 것으로 드러나 농협은 사회적인 지탄

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또 유명여성인사들이 유난히 수난을 당한 해였다. 전경련 2만달러 격려금 파문으로 한달 만에 중도 탈락한 손숙 장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헛소문에 시달려 결국 친자확인소송까지 가야 했던 MBC 전 앵커 백지연씨, 그리고 최근 여당의원으로부터 '싸가지' 운운 발언에 고발까지 해야했던 김영선 한나라당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이다. 그렇게 염원해오던 여성경제인지원법들이 1월 전격 통과됐고 6월 본격 시행됐다. 여성경제인지원법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전체 여성경제인을 아우르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6월 정식 출범했다.

이밖에 아줌마 담론과 서갑숙씨 논쟁도 올 한해 빠뜨릴 수 없는 사건에 속한다. 지난 4월 '아줌마 전시회' 이후 쏟아지기 시작한 아줌마 담론의 핵심은 한국 사회의 아줌마 집단을 그저 뻔뻔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에 저력이 된 근성있는 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책이 출판됐는가하면 아줌마 현장, 아줌마 콘서트 등 아줌마 다시보기를 시도한 이벤트들이 줄을 이었다.

서갑숙씨가 자신의 성체함을 엮어 펴낸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이제 여자도 과감히 자신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여배우의 성체함을 상업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여성계는 남성의 고백엔 관대하지만 여성의 체험고백서는 안된다는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성가치관을 오히려 비판하며 서갑숙씨를 지지하기도 했다.

(최진숙 기자 jinschoi@womennews.co.kr)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열풍/ 황혼이혼 논란 미혼모 인권 이슈/ 농협 사내부부 우선 해고/ 유명 여성인사들 수난 여성기금추진위 발족/ 여성기업인지원법 시행/ 아줌마 담론/ 서갑숙 논쟁



법사위 의결 동성동본금혼제 '주춤'

현재, '민법 809조 효력상실' 반박 여성계, 수정안 즉각 철회 촉구

정기국회 폐회 하루전이었던 지난 12월 17일 오후 5시 국회 법사위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민법개정법률안이 여성계의 거센 비난으로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이날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민법개정법률안을 수정해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안에서 삭제된 동성동본금혼규정과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을 다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곧바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고, 이미 97년 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법사위의 의결안은 효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정영숙)와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은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부계혈통만을 주장하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동성동본금혼은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사항"이라며 "동성동본금혼조항인 민법 809조1항은 97년 1월 '입법부가 98년말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으로 이미 폐지됐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거세자 여야 총무회의에서 민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6대에서는 논의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여성특위는 이와 관련 자체 수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수정안은 '동성동본금혼제는 폐지하되, 8촌이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제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올해 최악의 경험을 한 셈이다. 여자들이 유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그리고 기쁜 여자를 가만두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들이었다.

여성계의 여야를 뛰어넘어 범여성계가 한데 뜻을 모은 일도 있었다. 딸들의 미래를 위해 모금운동에 동참하자며 떠온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그것이다. 지난 12월 6일 이희호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발족식을 한 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금을 모아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쓰자는 것. 성금이 쌓이는 대로 여성기금추진위는 한국여성재단으로 전환하게 된다.

여성경제인들에게도 올 한



여성들의 메시지 · 세기말에서 새천년으로

“남자도 여자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관용의 시대 맞고 싶다”

1999년 12월 31일,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을 해피로 전지구가 흥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성들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는 여성 10만에게서 세기말 새천년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이들 메시지의 공통점은 더 이상 20세기의 부조리, 특히 성차별적 전통이 우리 딸들을 위해 답습돼선 안된다는 것, 그리고 이전 남녀 성별구분이란 이분화 작업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용 충만한 새 시대를 맞고 싶다는 바람이다.

“열린가족 평등가족 이뤄야”

제1세대 여성사회학자인 이효재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새천년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시대이고 여기에 여성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화두를 시작한다. 삶의 질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기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열린가족 평등가족’을 이뤄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한국 가족사연구의 대가답게,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인 가족이 늘 피해와 억압, 수동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형태로만 왜곡돼 온 것을 안타까워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남성이 주도해온 지배와 권력의 정치역사로서 이것이 가족에 그대로 투영돼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가리워왔다는 의견이다.

“전쟁 성폭력을 매듭짓자”

우리 사회 공동체적의식의 결여에 대해선 예외없이 많은 대선배들이 안타까워 한다. 윤정옥 한국여성문제대대책협의회 대표는 새천년엔 기필코 가족이주의를 벗어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적의식을 배우지 못하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없을 거란 일침을 가한다. 혈연 집착에서 떠나 역사와 사회에 눈돌려 생활환경을 넓힐 능력과 책임 역시 그는 여성의 몫이라 생각한다. 특히, 현재 윤 대표가 이 역사의 키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



사단법인·민원기(가)사

천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법 법정. 극도의 민족차별로 인한 여성징용을 해방 직후 엄정히 심판했다면 동티모르, 구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의 아관적인 인종청소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정신대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미래 세기에 전쟁으로 인한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 믿는다.

“권위주의적 문화풍토를 버리자”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수석대표는 체면과 존지란 우리 고유의 문화가 부패와 불신을 낳고 계급의식을 전파하며, 이것이 결국 남녀차별·세대차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장유유서를 고집하는 권위주의적 문화풍토에선 불과 몇 초 사이에 세계 정보가 교환되는 미래 세기엔 후진국을 면할 수 없을 거란 예측이다. 따라서 그는 이것만은 버리고 갈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새천년 여성주류화 행진의 핵심으로 여성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권으로의 여성진입, 그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의 마음도 그만큼 가쁘고 절박할 수밖에 없다.

“여성정치기에 대한 색안경은 이제 그만”

김현자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여성 정치 주류화를 위해 정치의 영역이 고, 여성정치기는 특수직업이란 선입관부터 벗어나라길 고대한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정당가입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여성들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중적 태도는 이제 그만 두자는 당부도 한다. 교육, 환경, 복지 정책 등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남성 최후의 보루인 정치권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은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는 권유다.

“새천년 개각에 여성몫 주장하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지역고주의를 새천년까지 짊어지고 간다면 남북통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들이 인물 소개시 지역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의 업무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과감히 생략해주길 요청한다. 무엇보다 양성평등 새 세기를 여는데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인 만큼, 새천년 초의 개각 때 여

성계가 단결해 여성몫을 당당히 주장해 첫 단추를 잘 끼워주길 희망한다.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올 한 해 소신을 굽히지 않은 의원활동으로 주목받은 이미경 국회의원은 “희망의 새천년을 일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좀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할 때 비로소 남녀차별, 지역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경쟁적 이기주의까지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생색내기 정치행태를 물갈이하자”

안성례 전국여성광역의원협의회 의장 역시 정치 일선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더이상 새천년에 이어져선 안된다”는 것. 특히 전문성보다 ‘생색내기’에 열중하는 일부 남성정치인들의 행태를 여성정치 주류화로 물갈이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이를 위한 여성들 자신의 ‘틈새 파괴’ 전략 개발을 그는 새천년 중심과제로 벌써부터 고민중이다.

“모든 아이들이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길”

빈민운동가인 강명순 부스러기선교회 총무는 “제발 2천년대엔 우리 아이들 모두 하루 세끼 다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출발한다. IMF위기는 벗어나고 있다는데 강 총무가 느끼는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결식아동 수는 증가 추세인 만큼 2천년에도 빈곤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측에 그의 마음은 어둡다. 그 근처엔 행정당국자들이 ‘아이들은 하루 한끼만 먹어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그는 분노한다. 방학이 닥쳐서야 한시적으로 관려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분배하는 행태는 새천년엔 결코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강력한 요청이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관리 돼야 한다”

황혼이혼 이슈의 주인공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시형 할머니는 “앞으로 나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늙은이 ‘생으로 죽어’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자신과 주위 할머니들의 경우를 봐서 ‘더이상 법을 믿을 수 없다’는 할머니가 미래 세대에겐 권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확실한 소신에서 결혼하고, 재산관리는 꼭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호주제 폐지없이 딸 미래 없다”

미혼모의 처지를 당당히 밝히고 10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딸을 되찾은 진현숙 씨는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고는 딸과의 온전히 밝은 새천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힘 닿는대로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 역시 아직까지 자신의 호주가 결혼도 안한 남동생이기에 이런 소망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박이 은경 기자 pleun@womennews.co.kr)

희망찬 새 천년과 함께

하나로 통합된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 천년의 새 이름-국민건강보험

국민여러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2000년에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 2000년부터는 연중 365일 제한없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 ◆ 산전, 진찰, 재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 ◆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 ◆ 보험료 부담이 더욱 형편에 맞게 부과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중산층과 서민중심사회의 길을 열게 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문제를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사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http://www.nhic.or.kr>